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80호〉
2001년 3월 13일(화)

발행인 이영희 편집인 김재현 주간 반영태 편집장 박수동 인쇄인 홍문주 신문사 961-4151, 962-7126 F1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966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93

2 대학톡톡 아번주는 장학생 모집 기사가 눈에 띄네요.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에서 모집 중인 복지 장학생. 장학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보심이 어떨까요?

3 사회톡톡 총장실 점거가 끝나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죠.

4 학술톡톡 부활하는 일본의 국군주의 환상! 직접적으로 교과서 왜곡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맥을 정확히 짚어 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그리고 우리나라는 떳떳하게 일본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5 사회톡톡 조선일보가 싫다면 옥천으로 갑시다. 조선 비보운동이 한창인 옥천을 다녀왔습니다.

새내기톡톡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3월, 분주하고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각 단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새내기톡톡 이하번 용훈이의 하루생활 엿보기!

점거농성 풀고 대화 지속키로 해

양 배움터 총학 1학기 등록금 '동결' 요구

용인 지난 7일(수)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남기고 용인배움터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학교측과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번 점거가 장기화되는 것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목) 양측은 용인배움터 부총장과 총학생회장 공동성명으로 '외대의 현안문제와 관련한 학교당국과 왕산학생회의 입장'이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학사운영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회 활동을 크게 위축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학교측의 반성과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학내의 구성원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는 학생측의 반성을 담고 있으며, 양측은 '대화와 신뢰구축'으로 외대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등록금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제반의 문제들을 학생들과 풀어나갈 것을 밝힙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인배움터 간부장학금 50%사감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이 서울배움터의 교비(교육활동지원비)와 간부장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12일(월) 열리는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적 학사운영쟁취를 가치로 시작된 이번 총장실 점거는 학교측과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간의 합의사항 번복과 등록금 조정 실패에 따라 장기화됐다. 이 과정에서 신나사건, 학생처 항의방문 등 양측간의 과열되는 모습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고소, 고발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 관련기사 3면

사태가 장기화 된 원인은 작년부터 계속돼온 양측간의 대화 단절이 서로에게 불신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은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논하는 데에 있어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학교측의 대화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오는 14일(수) 등록금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총장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 전면 재논의'를 기치로 계속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양측간의 논의가 주목된다.

서울 총학생회는 지난 4일(일) 22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를 열고 등록금 7%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1학기 등록금 동결'과 '3회 분할 납부'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지되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할 것이다"며 "경제난으로 목돈 마련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을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다"며 이번 등록금 투쟁의 목표에 대해서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에는 전교생이 교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옷을 입고 올 것을 제안 했다.

이외에도 이번 확운위에서는 본관신축에 대한 입장을 정리 했다. 재정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것을 문제 삼고 △본관신축 2단계 공사 저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우선적으로 신축공간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공간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재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작년 겨울 도서관 소음문제에 관해 합의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해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이전에는 노천을 사용할 경우 총학생회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은 등록금 투쟁에 관련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금 사안이 매년 제기되는 만큼 '교육'에 의미를 둬 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학부

그 날을 기다리며 지난 해 5월 부터 시작된 국보법폐지,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실현을 위한 농성이 계속 되고 있다. 양심수들의 갇혀있는 고통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모형감옥을 명동성당 측은 통행불편을 이유로 세번 강제철거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농성단 단장인 진재영(전대 90)군은 "인주화의 상징라 일컫는 명동성당 측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류지훈 기자

한총련, 4년만에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한국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2001년 자주통일의 새 세기 백만의 창조와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3일(토) 고려대에서 9기 한총련 정기중앙위원회(이하·중앙위)가 열렸다. 중앙위는 한총련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낙인찍혀 지난 4년간 안정적인 중앙위를 개최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중앙위는 개최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작부터 주위의 관심을 모았다.

8기 한총련 평가와 간부 인선, 결정서 및 특별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 행사는 미선출'대학과 개별탈퇴 대학 1백 1명을 제외한 재적인원 99명중 65명이 참가해 성사됐다.

먼저, 8기 한총련 평가에 대해서는 연세대 총학생회가 △97년 이후 학생운동 대중화 △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를 실천적으로 외화하지 못한 한총련 내 단절과 단합 △ 일꾼들의 관료적이고 독선적인 활동작풍에 대한 문제를 골자로 한 이견안을 제출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이 내용은 총 재적인원 65명 중 38명의 찬성 의안으로 채택, 본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번째 안건으로 한총련 중앙간부인준이 진행됐다. 한총련 대변인에는 홍익대 총학생회장이,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이하·학자추)에는 광운대 총학생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후 중앙집행일꾼 인준 안건 또한 "이후 내실있는 8기 한총련 평가와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한총련간부를 확대한다"는 전제를 달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중앙위는 결정서와 함께 통일, 교육 등의 당면과제를 담고 있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중앙위의 토론 과정에서는 한총련 평가와 학생운동 대중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는 기층에서부터 한총련 운동에 대한 건전한 고민들과 토론들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학생운동 대중화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뒷받침해 준다.

사회부

9일(금), 이사회 열려 예산안 확정

우리학교 법인은 지난 9일(금) 조선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원 참석한 이사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률 7%가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등록금 5%선 재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이사들의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임시 이사회는 지난 2월 23일(금) 서울배움터 이사장실에서 열린 2001년 1차 이사회에서 시간관계상 의결이 보류돼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검토한 것이다.

대학부

본교생 국보법위반으로 구속

우리학교 김재헌(상경·무역 89)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김군은 지난달 28일(수) 오전 7시 30분경 학교앞 자취방에서 의정부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이후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군은 작년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 대표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를 비롯 각 단대 학생회는 지난 10일(금)자 한겨레 생활광고를 통해 △김재헌군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지부는 변호사 고용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인다.

사회부

바로잡습니다

지난 779호 '본교생 시위중 연행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고운'을 '최고운'으로, 추형석(경상·무역97)'를 추형석(경상·경정97)'로, 한정은(서유럽·서반아99)'를 한정은(서유럽·불어99)로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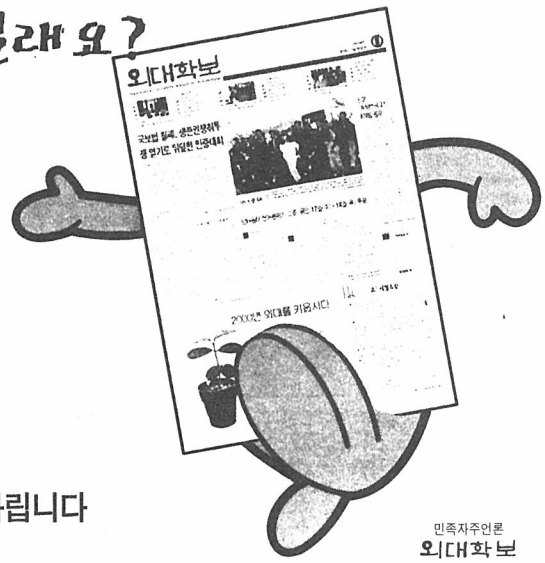
외대학보

사령

임

문화부장 윤홍은 (동학·아랍어99)
대학부 차장 이수경 (서유럽·불어00)
사회부 차장 류지훈 (사회·신방00)
문화부 차장 김현지 (자연·정보통계00)
교육부장 정효정(인문·철학 98)

외대학보



빈 칸

징계 지우기

▲핸드폰을 열어보자. 친구에게 전해들은 전화번호를 기억시키려 한다. 글자를 잘못 써 '지움'키를 누른다. 잘못 눌렀던 모음이 사라지고 자음만이 남았다. 그렇다면 모음은 정말 지워진 버린 것일까? 사라진 것일까?

▲사실 지움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뒤로'키와 다름 아니다. 말 그대로 '지움'이 아닌 '뒤로'이다. 모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음이 쓰여지기 전 단계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일 뿐이다. 얼마 전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가 끝이 났다. 직원들은 총장실 점거로 인해 간이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대화과정의 질곡 속에서 무기, 유기 정학이라는 혼장을 달아야만 했다. 이제 논의는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 대화로서 외대의 현안들을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 우리는 진정한 출발선상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사과문의 말대로 라면 이후의 대화의 장소는 외대발전을 논하는 자리이다. 외대발전은 학교구성원이 모두 힘을 모아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그곳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그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대표와 학교의 대표가 만나는 대화의 장. 징계의 허물을 쓴 대표는 학생의 주인일 수 없다. 서로의 논의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징계 상태까지 학생들을 내몰은 것은 학교당국이다. 작년부터 계속되온 수많은 협상테이블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다름 아닌 학교였다. 원인이 그곳에 있다면 징계는 왜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들은 대표로 서야한다.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해야 한다.

▲아날로그는 다르다.

칠판을 지워보자. 자신의 이름을 칠판 가득 썼다 지운다. 분필을 머금고 있는 녹색 칠판에서 흘러내리는 분필가루들 이름은 사라졌다. 그것과 똑같은 한 개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말끔하다. 화살표를 클릭 함으로써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징계를 지우개로 지워보자. 같은 위치에서 그곳에 앉아라.

편집장

서 울

13일(화) 사학대회 열려 총기조, 총노선 등 의결

사범대학학생대표자회의(사학대회)가 오는 13일(화) 인문과학관 407호 강의실에서 5시 30분에 개최된다. 13일(화)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사학대회는 △총기조, 총노선 논의 △부서별 사업계획 △예산안 논의 △회칙개정안 △등록금 투쟁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사범대 율동패 '한발짝'에 대한 인준논의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사범대 학생회장 김재동(영어교육 99)군은 "정기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인 만큼 정기총회와 연계해 책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겠금 대표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교과 손승권군 입후보

영어교육과는 오는 12일(월) 사범대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손승권(97)군이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지난해부터 과회장 대행으로 활동한 손군은 '영교인을 책임지는, 교육을 책임지는, 인기절정 17대 영어과학생회'를 기치로 내걸고 과단합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보자인 손군은 "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뒤에서 하나가 되는 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교과는 오는 15일(목) 인문과학과 601호에서 새내기 교양학교를 진행한다. 새내기들이 대학에 들어와 겪는 혼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악이풀이, 회의용어풀이 등과 정세강연, 율동, 민가 배우기가 진행된다. 또한, 다음날인 16일(금)에는 대학원 311호 강의실에서 정기총회가 열려, 부과회장제도 폐지안건 등을 논의한다.

학복위, 13일(화) 까지 복지 장학금 신청받아

학생복지위원회는 2001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을 오는 13일(화) 6시까지 받는다. 장학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고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 제정된 복지장학금은 올해 선발기준에서 성적조항을 없앴으며, 융자 수혜자도 지원 가능하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복지장학금 신청서, 사유서 1부 등 구비서류를 복지위원회(학생회관 2층)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팩스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하다. 심사는 14일(수) 각 단과대학 1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선발된 40여명의 학생들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불된다. 이와 관련 학생복지위원장 결의자 윤상호(사회·신방 93)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자가 늘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금 융자 수혜자 등에게도 지급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961-4447,(FAX) 961-4454

사회대 문예패 알림제 개최

사회대 문예패 알림제가 지난 12일(월)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대 율동패, 풍물패를 비롯 행정학과 노래터, 신방과 새날이 참가해 각 패의 공연과 소개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새내기 모집과 문예패 알리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열린 알림제는 지난해 사회대 단대 율동패 등의 역량강화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경수(사회·행정 99)군은 "대중문화만을 경험하던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일(금), 외대 벤쳐스 강연 만찬회 열어

외대벤쳐스가 오는 16일(금) 저녁 7시 르네상스호텔에서 강연만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을 초청하여 '컴퓨터 산업과 벤처'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고, 참가들은 만찬도 함께 한다. 외대벤쳐스는 벤쳐사업과 관련된 동문들이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지난해 11월 31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대벤쳐스 회장 김영남 동문(영어 59)은 "재학생의 참여가 부족해 아쉬웠다" 며 "누구라도 벤처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학과 홍보 도우미 모집

입학과는 2002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등 연중 모집되는 새로운 입시제도에 맞는 준비를 위해 휴학생 도우미(입학업무 보조역할)를 오는 14일(수) 5시까지 모집한다. 선발시에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입학상담, 입학업무 및 홍보활동보조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단, 모집대상은 서울, 용인 배움터 휴학생이다. 문의전화 961-4473/4518

윤덕병 회장 흉상부조 제막

외대발전캠페인본부는 오는 14일(수) 오전 11시 반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주)한국아쿠르트 윤덕병 회장의 흉상부조 제막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우리학교 발전기금으로 12억을 기탁한 윤회장에 대한 예우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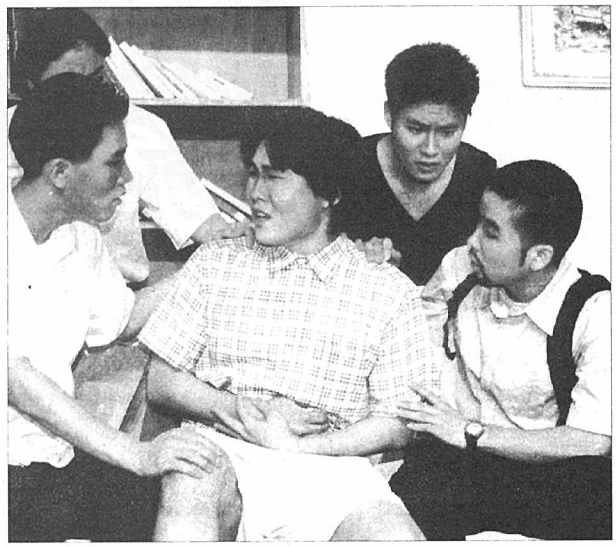
조규철 총장, 용인배움터 이종진 부총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가한다. 외대발전캠페인본부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휴상, 동판 등의 예우를 하고 있다.

언협, 언론관 강연주최

언론협의회가 주최하는 'MBC 정길화 PD의 한국의 언론개혁과 대학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강연이 오는 13일(화), 14일(수)에 서울배움터 대학원 소극장과 용인배움터 후복관 소극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새내기 언론사체험 기간 중 열리는 이번 강연은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언론 릴레이 비디오 상영 △정길화 PD의 한국언론 진단과 대학언론의 중요성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언론협의회 의장 우혜나(동학·마인어 98)양은 "사회적으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지금 '정기간행물(정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학 내에서도 여론화되었으면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 우양은 "언론에 관심이 있는 새내기 뿐 아니라 사회과학 학회·동아리에서도 참석해 모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연자인 정길화 PD는 우리학교 외대학보사 출신으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PD 수첩' 등의 제작자이다.



"아, 배야"

영어교육과 원어연극회 '우리 가치' 주최로 지난 10일(토) 서울배움터 대학원 소극장에서 정기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코믹한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위는 한 병 가득 든 약을 복용해 괴로워하는 배우의 모습이다.

사진부

용 인

생협, 각종 혜택 부여 되는 조합원 모집

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 교수, 직원, 학생 3주체의 학내 구성원에 의하여 출자되어 운영, 이용되는 생활협동조합은 스스로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생활공동체이다.

1구좌 5천원의 출자금과 기입비 1천원을 내면 졸업때까지 어학연수, 특강사업, 문화유산답사 등의 행사 참여 시 할인과 학내 조합이 운영관리하는 매장에서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출자금은 졸업 할 때 전액 되돌려 받게 된다.

이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장 육성원(지연·생명공학 96)군은 "많은 학생들이 학내 복지시설과 대학의 발전에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한편, 생활협동조합은 학생회관 1층 구 보건실 자리로 이전했으며 학생회관 매점, 어문관식당 스넥코너, 기숙사 매점을 방학 내 새롭게 단장시켰다.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ufs.ac.kr/~coop

각 과 개강총회 진행

△화학과

화학과 개강총회가 오는 16일(금) 늦은 5시 30분 자연대 112호에서 열린다. 방중사업보고, 1학기 사업계획, 과 옷 제작 등의 기타안건들로 진행되는 개강총회는 재학생은 물론, 교수님, 대학원 생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신입생 환영회도 진행되는 이번 개강총회에 학생회장 황진현(자연·화학 96)군은 "화학인이라는 이름으로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램을 전했다.

△유고어과

유고어과 개강총회가 지난 12일(월) 늦은 5시 어문관식당에서 진행됐다.

일년사업이 잘되기를 소망하는 고사를 시작으로 학생회, 학생회 운영방침에 대한 안내와 교수, 학과장 등을 소개하고 △방중활동 보고 △분기별 행사 사업공지 △회칙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동유럽대 율동패 푸름이, 노어과 풍물패 한소리의 공연도 열렸다.

이에 과회장 공성현(동유럽·유고어 96)군은 "개강총회가 과 의사 결정의 자리로 그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갔던 점이 없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이 바탕이 된 이번 개강총회는 회칙이나 활동보고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마인어과

과 개강총회 이래 128명이라는 최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금) 진행된 마인어과 개강총회는 활동보고 및 1학기 활동계획 △집행부 및 확대간부(학회장, 과대표 등)소개 △건의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우정장학금과 관련해 '지급된 장학금액에서 10%를 학과 과회비로 낸다'는 세칙을 통과됐다.

이와 관련 과회장 백승훈(96)군은 "내체로 사문화된 세칙이지만 올해부터는 과 발전차원에서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사항부분에서 '개강총회 안건과 함께 예결산 내역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주에 학과게시판에 내역서를 게재하기로 했다.

△생명공학과

지난 9일(금) 늦은 5시 30분 자연대 실험실에서는 생명공학과 개강총회가 열렸다.

재학생, 새내기 총 100여명의 참여로 개강총회는 과회장 이·취임식, 1학기 사업계획, 교수님과 집행부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과회장 신동훈(자연·생명공학 96)군은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였다. 개강총회를 출발로 앞으로 열의를 갖고 모두들 과 생활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계학과(8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수학과도 이 날 각각 개강총회를 진행했다.

생협, 16일(금)까지 복지장학생 신청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오는 16일(금)까지 2001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복지장학생 선발에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 전 학기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생협학생위원회(학생회관 1층)이나 사무국(후복관 3층)에 제출해야 한다. 단,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생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해 10명을 선발해 매월 20만원씩 4개월 동안 지급한다. 선발은 오는 20일(화) 생협 이사장실(후복관 3층)에서 진행되며, 발표는 21일(수)이다. 문의전화 생협학생위원회 구내전화 4153

학생식당 식대 부분적으로 인상돼

지난 12일(월)부터 2개 식당의 식대가 부분적으로 인상됐다. 지난 5일(월) 생활협동조합(생협) 임시 이사회를 열어 어문관과 아라코 식당의 각종 운영비 인상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2개 식당의 백반, 라면, 면류의 식대가 각각 100원씩 올랐으며, 어문과 식당에 한해 일품요리가 100원 인상됐다. 한편, 식권 10매를 구입하면 1매를 추가로 지급한다.

예비군 대원 전출입 신청받아

용인배움터 비상계획관실에서는 2001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에 대한 전출입 신청서를 받는다.

복학, 편입, 복수전공자, 재입학자(대학원생 포함)는 전입신고를, 졸업 및 휴학자, 자퇴자는 전출신고를 한다. 전출신고자는 학적변동신고서를 지참해야 하며, 전입신고자는 등록금납입영수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장소는 정보산업관 1층 5110호 비상계획관실. 문의전화 031)330-4111, 4119

이 사람

"한국문화, 아직 낯설지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호주국립대학에서 온 첫 교환학생 쉬본 토마스(Siobhan Thomas)양을 만나

"한국 사람들 모두 술고래 같아요. 그 독한 소주를 '원샷 원샷' 하며 마셔요"

가장 적응하기 힘든 한국 문화로 단연 '술 문화'를 꼽는 쉬본 토마스(Siobhan Thomas) 양.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겐 당할 수 없다는 듯 허를 내두른다.

양 귀에 6-7개의 피어싱을 하고 왼쪽 콧망울에도 피어싱을 한 그녀는 호주에서 온 첫 번째 교환학생이다. 한국 생활 4개월 째. 한국에 오기 전 호주에서 3년간 한국어 공부를 해서 일상적인 대화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사실은 호주에서 북한 역사에 대해 공부했었다는 것. 흥미로움을 느낀 기자가 왜 한국어와 북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고 물었다. "호주에선 주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북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그녀 성격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녀는 도서관 옆 쪽문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데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타지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음식'. 하지만 그녀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를 최고로 꼽는다. 그녀가 즐겨 먹는다는 음식 중 하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졸면'이었다.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는데 저한텐 잘 맞는 것 같아요"라며 "외국인 친구 하나가 있는데 닭갈비를 한 번 먹더니 하루 종일 설사를 하더라"며 박장대소하는 그녀.

소탈하고 밝은 성격의 그녀는 한국의 놀이 문화에도 잘 적응하는 듯 했다.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여느 한국 학생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피씨방에도 가며 친구들과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주변으로 놀러가기도 한다고. "피씨방에 가면 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하숙집에 혼자 있을 땐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그녀는 전했다.

그녀가 한국 생활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면 세계사를 가르치고 싶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싶었다며 "아직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한국사람과 대화할 때 말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어디로 갈 것인지 묻자 그녀는 "목욕탕! 목욕탕!"을 연발하며 "피곤할 때 사우나에 들어가면 몸이 개운해진다. 호주에도 이런 대중목욕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으로 가득한 그녀. 이런 그녀에게서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 없이 산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세계사 선생'을 보았다면 기자가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류지훈 kickbutt@orgio.net

주간일정표

	12일(월)	13일(화)	14일(수)	15일(목)	16일(금)	17일(토)
서울	영어교육과 선거 9시~6시 / 총학생회 일꾼 교양학교	복지장학금 신청만료	입학과 도우미 모집 14일 5시까지 / 서반아어과 개강총회	영교과 새내기 교양학교 인문과학관 601호 /	외대벤처스 강연만찬회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 7시 / 영교과 정기총회	
용인					화학과 개강총회 자연대 112호 / 생협 복지장학생 모집 기간만료일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12일)	불고기백반 (₩1,000)	김치비빔밥 (₩1,400)	카레라이스 (₩1,400)	닭곰탕 (₩1,500)	아채볶음밥 (₩2,300)	스파게티 (₩1,200)
화(13일)	사골우거국밥 (₩1,400)	해물잡탕밥 (₩1,500)	화사커틀렛 (₩1,600)	냉이된장찌개 (₩1,300)	콩나물비빔밥 (₩1,200)	돔면 (₩1,000)
수(14일)	육개장 (₩1,500)	찌짐밥 (₩1,200)	오므라이스 (₩1,500)	오징어선지찌개 (₩1,400)	불고기덮밥 (₩1,400)	떡만두국 (₩1,200)
목(15일)	콩나물국밥 (₩1,400)	닭불고기덮밥 (₩1,500)	두부덮밥 (₩1,300)	참치김치찌개 (₩1,400)	오징어볶음덮밥 (₩1,500)	짜장면 (₩1,000)
금(16일)	생선조림백반 (₩1,000)	소고기버섯덮밥 (₩1,400)	오징어숙회비빔밥 (₩1,200)	얼갈이곰탕 (₩1,500)	부대찌개 (₩1,500)	잔치국수 (₩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 1	중식2	분식	조·중식	석식	탕
월(12일)	쉼 하이스 (₩1,400)	갈치탕 (₩1,800)	떡국 (₩1,200)	오징어부국 (₩1,400)	호박된장국 (₩1,400)	육개장 (₩1,800)
화(13일)	소고기육개비빔밥 (₩1,400)	불고기전식 (₩1,800)	칼국수 (₩1,200)	아욱부채국 (₩1,400)	미역국 (₩1,400)	닭도리탕 (₩1,800)
수(14일)	쉼 볶음밥 (₩1,400)	닭육개장 (₩1,800)	가다국수 (₩1,200)	콩나물부거국 (₩1,400)	홍합무국 (₩1,400)	떡만두국 (₩1,800)
목(15일)	만두국백반 (₩1,400)	삼계불고기비빔밥 (₩1,800)	비빔콩면 (₩1,200)	수제비육개장국 (₩1,400)	낙지해무국 (₩1,400)	미역감자두부찌개 (₩1,800)
금(16일)	오징어볶음밥 (₩1,400)	만두전골 (₩1,800)	되김우동 (₩1,200)	김치콩나물국 (₩1,400)	우거지된장국 (₩1,400)	해물찜볶음밥 (₩1,800)

용인배움터 총장실점거 정리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지속해야

△서울배움터 학생처 항의방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간부 15명은 학생처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서울배움터 학생 부처장의 멱살을 잡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난 8일(목)에는 한국어대학교 전체직원 일동으로 된 성명서가 발표돼 '학교의 안정과 행정권 수호차원'에서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처 항방은 지난 2일(금) 입학식 당일 총학생회가 점거하고 있는 총무과와 부총장실 등을 업무재개가 가능한 조치를 하는 도중에 서울배움터 학생부처장이 이를 저지하면서 시작됐다.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총장실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

학교측은 약속을 번복한다.

점거가 장기화 되자 학교측은 총장실 점거 중인 학생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단행한다. 또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게는 무기정학을, 나머지 점거 당사자들에게는 유기정학을 내린다. 이와 관련 전 용인배움터 학생처장 조기성 교수는 "신나 사건과 점거 장기화가 징계위원들의 결정이었다. 최소한의 징계를 원했지만 대다수의 징계위원들은 징계수위를 높이자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생처로부터 징계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 받았지만, 결과는 총학생회의 두 대표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 또한, 형사고발 조치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약속받았지만 고발조치 이후 20여일 이후에 철회됐다.

이에 대해 황중환군은 "약속은 이뤄지지만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나가 뿌려지다

1차 총장실 점거 당시 화대점거를 진행하던 총학생회는 양측이 몸싸움 도중 신나가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신나가 당시 원서접수를 받고 있던 입시 도우미 눈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징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신나 사건의 진실은 격분한 학생이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려는 와중에 신나가 뿌렸다는 것.

△총학생회 점거의 시작

총학생회는 점거의 시작은 작년부터 계속돼온 학교측의 '일방적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선, 간부장학금 50%사감과정을 보자. 지난해 여름방학 중 장학위원들은 간부장학금 50% 사감할 것을 결정한다. 용인배움터 간부장학금의 액수는 전체 장학금의 19%로 대단히 큰 액수여서 조정이 필요함을 엘지컨설팅안에서부터 제시됐었다. 하지만 용인배움터 학생회측은 그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총학생회측 "총학생회 운영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일방적 통보만을 하는 학교측의 모습은 정말 학생들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학생처장 조기성 교수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측은 장학금 논의가 나와있는 엘지컨설팅안 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대화로써 해결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측은 총학생회가 주장한 총장퇴진 운동 당시 "학교측은 22대 총학생회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해 대화의 단절을 심화시켰다.

ADM

위 사진은 학생들이 학교측의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이제 대화는 시작됐지만..

총장실 점거정리는 했지만 아직도 양측간의 앙금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양측이 외대발전을 이룩해나가는 파트너로 상대를 인정해 줄 때 가능하다. 공동사과문에서 밝혔듯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한인애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징계문제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안들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대학부

쓰레기 더미 옆 5·18정신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앞 '5.18 기념묘비' 옆에 쓰레기와 학교 물품들이 쌓여있다. 기념비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세울 당시의 숭고한 의도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사진부

덕성여대 재임용 탈락된 김경남 교수를 만나

"임명권 남용, 사립학교법 재개정 의미 보여줬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 등이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일 재임용 탈락된 김경남(중국어과)교수를 만나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편집자주

이번 덕성여대사태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사립학교 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이번 사례가 극명히 보여줬다. 임명권 남용을 보여줬고 소신을 가진 교수들이 강당에 설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학생들이나 학내 교수들의 반응

학생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부닥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재단이사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교수님들이 한 목소리로 "부당하다"고 하고 학생들이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이 힘이 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내나

학생들이 있는 한 끝까지 강의실을 지킬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 자유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린다. '집으로 가는 길'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전에 올리고 식사 끝나고 들어가 보니 조회수가 10분 상간에 50회가 늘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8회로 되어있었다. 조회 수까지 조작하고 있다.

집에서는 반응이 어떤가

집사람은 솔직히 잘 모른다. 내용은 충분히 정당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솔직히 집에 말할 용기가 안 난다. 집에서는 코미디언이 돼서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초등학교 쌍둥이가 둘 있는데 갓 자리를 잡아서 생활의 여력이 없다. 최소한의 인정과 도의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여기서 복직이 안되면 타대는 물론 학교에 발붙이기 힘들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학생들과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부당한 것에 대해 불복종하는 것은 지성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는다.

Unews 박정미 기자

(Unews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779호 3면 '신규임용 파정에서 집중일어'라는 기사 중 법학과 학과장 김동훈 교수의 "명정표 작성이 동시에 이뤄지진 않았지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다"는 실제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김 교수는 "명정표 작성은 동시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외대학보

사설

'명동성당' 그 이름 찾기

지난 2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모형감옥이 사라졌다. 1월 18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를 위한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형감옥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 왔다. 성당 정서에 감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동성당 백남용 주임신부는 지난 3월 6일 두 번째로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 된 새로운 감옥을 철거한 것이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며 명동성당 초입에 팔 벌리며 서있는 예수님의 동상. 지금까지의 명동성당의 역사와 상징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의아한 일임에 틀림없다. 과연 명동성당이 주장하는 대로 명동성당은 신도들만의 신앙공동체적인 역할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명동성당의 사회적 상징성은 한국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건물 자체가 최초의 서양식 고딕 건물이라는 이유에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에는 사회 원조를 위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빈민구제를 위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1970~1980년대 명동성당은 '민주화를 위한 성지',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의 성소'로서 그 상징성을 갖는다.

신앙이 있건 없건 어려움이 생기면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고 70년대 독재정권 시절이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도 성당이나 교회는 약한 이들과 민주화를 외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성당이나 교회에 난입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인식들 때문이었다. 특히 이 시기의 명동성당은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저항의 영역으로서 반체제적인 모임과 활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도덕성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 정치적 변동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던 까닭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이 억압당했던 당시의 암울한 상황에서 여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권의 불의를 고발함으로써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의식을 한국사회에 고취시켰던 희망의 장소가 명동성당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호소할 데 없이 내몰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섬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던 곳도 명동성당이었다.

명동성당 스스로도 건축 100주년 기념사업을 알리는 관냅에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명칭에 걸맞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주화의 성지요 고통받는 이들의 피난처였던 명동성당이 변해 가고 있다.

물론 날이면 날마다 이어지는 각종 집회와 시위의 와중에서 성당과 군중이 항상 웃는 낯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할 수만은 없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문제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여론이 제대로 환기되지 않고 묵살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여 아직 민주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호소할 일이 있어도 장소를 찾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명동성당이 신도들만의 신앙공동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명동성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명동성당은 사람을 내쫓을 수 없다. 그리고 내쫓으면 안된다. 그들을 내쫓고 난 뒤 텅빈 마당을 누구를 초대해 채우려고 하는지 명동성당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KHIH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oongAng Ilbo

그 명성이 이제 해설판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교재로 영어를 공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어실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해설판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IHT-JoongAng Ilbo의 해설판은 우선 IHT의 해설기사나 논평 등 고품격 문장이 해설교재가 됩니다. 영작클리닉에서는 중앙일보의 사설이나 칼럼의 영역 및 교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소개해 영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와줍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회의영어, 영어스피치, 속담코너, 비즈니스 회화 등 다양한 연재물을 요일별로 안배해 수험공부 위주의 기존 해설판들과는 완전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THINK English로 당신의 영어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 1page - IHT 주요 기사 · 칼럼 번역 ■ 2page - TOEIC, TEPS, 영어식 시고&표현 등
■ 3page - TOEFL, 국제회의영어, Dr.yang 등 ■ 4page - 신문영작 클리닉, 비즈니스영어 등

■ 구독문의 : (02) 751-9222

학술단신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교육 실시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는 오는 15,16(금) 양일간 중남미지역에 대한 국제지역정보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약 30차례의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중소기업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임직원, 공무원, 무역업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과정은 이들의 현지방문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총 1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중남미개관(1시간30분) △시장특성 및 상관습(1시간30분) △현지경험사례발표(4시간) △바이어 성향 및 발굴·접촉방법(1시간30분) △무역계약 및 수출·통관시 유의사항(1시간30분)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청에서 지원,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집기간 : 2001년 3월13일까지

모집인원 : 50명 내외

등록방법 : 한국외대 홈페이지(www.hufs.ac.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다음 아래 Fax번호나 E-mail로 송부바랍니다.

연락 및 기타 문의

Tel : 031-330-4807~8(연수팀), 4810

Fax : 031-330-4810

E-mail : sangwoo@mainec.hufs.ac.kr

(담당자 : 이상우)

기고글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 계속되는 군국주의의 향수

또 다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 정치인들이 시시때때로 내뱉는 '망언'에는 이제 우리도 만성이 되어 둔감해지고 있지만 이번 역사 교과서 왜곡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즉, 역사 왜곡이 일개 정치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교과서가 국정이 아닌 검인정인 것을 들어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쪽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교과서 검정에 해당 부서인 문부과학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흔적은 너무나 역력하다. 특히, 현 문부과학성 장관인 마치무라 노부타가(町村信孝)는 이미 입각 전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우익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이고, 이번 교과서 검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남북한과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의 필연적인 마찰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일본이 무리하게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 군국주의 시대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일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류(main stream)세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본의 경우 다른 2차 대전 전범국과는 다른 독특한 이데올로기인 '황국사관'을 정신적 기반에 두고 있다. 현재 황국사관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넘어 일본 국민들 사이에 넓게 주입된 하나의 '멘탈리티'로도 자리잡고 있다. 즉, 국가와 천황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메이지 유신이후 꾸준히 일본의 지도층들의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종교적 색채가 다분히 느껴지는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일본적 파쇼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극우 정치인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광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일 것이다.

> "현재 황국사관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넘어 일본 국민들 사이에 넓게 주입된 '멘탈리티'로도 자리잡고 있다"

한편,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인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와 달리 전후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거 청산'이 진행되지 못했다. 즉, 전쟁의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히로히토에 대해서 승전국 미국은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는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스, 이탈리아에서 뭇솔리니와 파시스트당이 거의 완벽하게 인적청산은 물론 물적으로도 반민주적인 파시스트 독재체제가 청산된 것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는 너무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이유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의 대 아시아 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이기적인 국익이 고려되었음은 당연하다.

▲ 2차대전 이후 과거청산 과정이 없었던 일본은 과거사를 무의식 중에 왜곡, 날조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이번 '교과서 왜곡 사건'도 이러한 바탕에서 이뤄졌다.

2차 대전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다시 전후 일본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자기 반성 능력을 상실하여 지나간 과거사를 무의식적으로 왜곡, 날조하고 심지어 자신들조차 피해자라는 의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세력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군국주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이다.

문제는 그러한 과거 지향성이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보수 냉전세력을 대변하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다. 최근 북·일수교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다시 폭격하였다.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러시아,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려 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게 대북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제 정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도식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공식화 → 역사 교과서 왜곡→ 군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한 이른바 평화헌법(제 9조)의 수정 → 전역미사일방위 체제에 적극 참여, 세계분쟁지역에 자위대(사실상의 군대) 파견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 장악.

그러면 이제 시각을 나라 안으로 돌려보자.

먼저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일화들을 보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우리 사회의 주류가 나서서 다음 정권을 잡아야한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주류는 어떤 세력인가.

역시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될만한 발언을 자민련의 김종필씨가 한 바 있다.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바카야로'라는 말을 한 것이 그것이다. 바로 이 '바카야로'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정치 권력 상층을 이루고 있는 주류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명확해 진다. 김종필씨는 1965년 체결된 굴욕적 한일협정의 당사자이고, 한일양국의 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를 폭파하자고 발언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문제가 많은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런 그가 이번 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측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은 역지를 부리고 우리는 그것을 코메디로 대응하고 있는 순간이다.

>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 상황이 이러한 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점점 역사과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고 나선 쪽은 보수 단체의 대명사인 재향군인회와 한국교총, 광복회 등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였던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주류세력이 청산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상황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친일파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사회,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인들이 백발이 된 지금까지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10년 째 매주 수요일이면 사죄와 보상을 목놓아 외치는 사회,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미국 법정에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사회, 항일운동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고, 심지어 일본군 장교 출신 대통령의 기념관이 세상을 호령하듯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 결국 '항일'과 '친일'이 동시에 기념되는 사회, 그래서 상식이 없는 사회.

일본군 출신 대통령 기념관 바로 옆에서 우리는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의 친환과 수상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한다. 두려운 상상이 너무도 실감나게 다가와 두렵기까지 하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점점 역사과목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전반적인 인문학 경시 풍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느 사회이건 역사는 그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는 유일한 나침반이다.

일본이 자신들의 나침반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나침반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 역시 문제이다. 일본의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역사왜곡과 함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소극적이고 부작위의 역사왜곡 또한 직시해야 할 때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연구원〉

일본의 민족지

○…지난 5일(월) 창간 81돌을 맞은 조선일보가 '우리의 사장은 모두 애국자였고 우리 기사는 항일 정신을 담은 명기사였다!'는 요지의 특집을 싣으며 '민족지'임을 강조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반민족적 친일행위의 증거가 도서관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걸 알기나 하는지…

조선일보를 일본에 가져다주는 건 어떨까.

진정한 '일본의 민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이다.

〈훈〉

○…명동성당에서 국보법 관련하여 농성하는 사람들이 쫓겨났다.

성당측은 성당의 권리도 존중해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이번 사건을 일축시켜 버렸다는데…

이에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차여 한번의 실연을 겪은 우리 크로니클자 "좀고 배고픈 자여, 이리로 오라고 했던 예수님마저 날 배신하는 군, 이제 난 누구를 사람해야 하나…"

〈홍〉

○…3월 14일은 솔로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화이트 데이!

일본에선 교과서 왜곡이 한창 진행중이라는데… 화이트 데이를 맞아 화이트로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을 고쳐보는 건 어떨까? ^^::

〈효〉

○…용인배움터 새내기인 나.

왕복 통학시간이 5시간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기숙사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본 크로니클자 왈 "주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집 짓자. 기숙사.hihome.com"

〈환동〉

인터넷에 집 짓자(?)

가라사니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힘

분식회계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전 회장이 분식(粉飾)회계를 통한 불법대출을 지시했다고 대우전자 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주장했다' (3월 3일자 중앙일보)

분식회계란 기업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한보철강-대우그룹 등 부실대기업들이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 국제금융시회에서 국내기업의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풍조가 일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분식회계는 대부분 허위매출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차입금을 감추는 방식으로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과대포장하는게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 대우는 해외 현지법인이 차입한 5조~6조원의 자금을 현지에서 이자지급이나 계열사 손실을 메우는 데 쓰고도 이를 숨기는 방식으로 무려 14조5000여원이나 조작했다. 대우통신과 대우전자는 이미 팔았거나 생산에 투입돼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재고자산을 장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부풀렸다.

비둘기 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임인 참동이 사랑회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217호/구내전화 4164
〈참동이〉

· 열린 인터넷 세상! eng TV에서 제 3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아나운서, 촬영/편집, 기획/홈보, 홈페이지 제작, 웹디자인, 방송작가, 보안/네트워 관리
면접 : 3월 15일(목) 늦은 6시
곳: 공대 301호
홈페이지 : http://engtv.hufs.ac.kr
〈공대 인터넷 방송국〉

· 강은영! 3월 16일 생일 축하해! 그리고... 〈현지〉

· HAM에 오시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 316호로 오셔서 유지태와 김하늘이 했었던 무선통신을 배우십시오. 〈HAM〉

· FBS 외대 교육 방송국에서 21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대학 생활을 원하는 새내기 여러분은 주저 말고 어문관 207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물 : 도장, 사진 2매
모집분야 : 아나운서, 리포터, PD, 엔지니어
기간 : 3월 19일(월)까지 〈FBS〉

이문벌

□ 알립니다.

· FBS 외대교육방송국이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원서마감 : 3월 21일(수)
www.hellofbs.com과 시청각 6층 방송국에서 원서교부. 〈FBS〉

· 외대 통번역협회 회원모집
원서접수 : 3월 5일~21일
1차시험 : 3월 21일(수)
문의 : 961-4169, 968-6377
장소 : 학생회관 2층
〈외대 통번역협회〉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8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1)330-4112, 4580

외국어연수생 모집
(이간 10주과정 모집)

▣ 모집과정 및 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 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스칸디나비아어, 불란스어, 루마니아어, 헤브어, 헝가리어, 휴고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타이어, 이건어, 아프리카어과(총24개어)

▣ 교육기간 및 시간

과 정 명	교 육 기 간	수 업 시 간	수 업 요 일
대학생과정	2001. 4.16 - 6.22. 10주	17:40 - 19:30	주 4일 (월, 화, 목, 금)

▣ 지원절차 및 원서
원서교부 및 접수처 : 2001. 3.30(금)까지 전화등 외국어연수생가회(전화/FAX/인터넷으로 접수가능)
제출서류 : 수업료(시본 및 소급일전), 사진1매(반명함판), 등록금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자격 제한 없음 (단 대학생도 지원 가능)

▣ 반편성시험(Level Test)
일시 및 장소 : 2001. 4. 7(토) (대학생 14:0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생가회
발 표 : 2001. 4.11(수) 14:00 본 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전화문의 가능)
◀ 각 해당 언어별로 Level Test (외국인과 1:1인터뷰)를 실시한다

▣ 등록금 납부기간 및 장소
2001. 3.12(월) - 3. 30(금) 외국어연수생가회 수납 및 은행
은행으로 무통장 송금(지정 본인 명의로 입금(타인명의 입금시 확인전화 요함)
재원은행 외대지점 1.2 10.000원4,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 타
교육기간중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언어실습실) 등 교내시설 이용 가능
인터넷 홈페 및 접수방법 : http://www.hufs.ac.kr
· 외국어연수생가회 연수부 (우213-791-0123)
문의처 : ☎ 961-4174/5, 962-7119 FAX : 962-057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성과과정 수시 접수중(외국인 및 해외교포대상)

외국어연수평가원

2002년 학군사관 후보생(ROTC)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제3학년 전학이 2년반으로 가능하고 휴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입관년월(2004. 3. 1)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군인사법 제10조 항교 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01. 3. 5(월) ~ 5. 12(토)

♣ 기타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
· 전화 : 서울 (02) 961-4411, 4412, 용인 (031) 330-4149
인터넷 : http://mainec.hufs.ac.kr/~ROTC

2001년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1학년(00명), 2학년(00명)
2. 지원자격
입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1학년(3년제) : '78. 10. 1 - '85. 9. 31 출생자
2학년(3년제) : '77. 10. 1 - '84. 9. 31 출생자
· 신체검사 결과 3급 이내인 자
·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2학년) : 1학년 학점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관련자의 동의서와 해당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1. 3. 2(금) - 4. 7(토)

♣ 기타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
· 전화 : 서울 (02) 961-4411, 4412, 용인 (031) 330-4149
인터넷 : http://mainec.hufs.ac.kr/~ROTC

르뽀 -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 활발한 옥천을 찾아

"옥천에선 조선일보 보면 큰일나요"

서울에서 기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6만의 조그만 도시 충북 옥천군. 하지만 이 작은 군에서 발아지고 있는 일은 민들레의 홀씨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조선일보 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조선바보)'이란 단체를 만들어 조선일보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월)에는 조선일보 창간 81주년을 맞아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주최로 조선일보 거부 3차 지식인 선언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식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 옥천의 '조선바보' 운동은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의 언론개혁운동이 어떻게 발생,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현장인 옥천을 직접 찾아갔다.

서울을 떠나기 전에 옥천의 유일한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오한홍(44)씨와 미리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오씨가 통신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던 전정표씨를 만나 의기투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바보'가 출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정표씨는 '조선바보' 회원의 발침인 '독립군'의 대장을 맡고 있다. 3월 현재 독립군 가입자 수는 4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옥천역에 내려 약속 장소인 역전파출소에 들어가니 오한홍 씨는 이미 도착해서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선 "옥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고 가서 기사를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명칭이 상당히 특이하다. '조선바보'란 약어나 '독립군', '조선바보'의 인터넷 사이트 이름인 '물총'(www.mulchong.com)도 독특한데 어떤 연유인가.

"(웃으며) '조선바보' 회원들이 모여 상의해서 나온 것이다. 우선 명칭은 쉽고 재밌어서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독립군'이란 명칭은 조선바보의 발족 취지를 고려해서 붙여진 것이다. '물총'은 거대언론재벌인 '조선일보'에 비해 우리의 힘은 '물총'정도라는 뜻에서 제안되었다."

조선일보 반대 운동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역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친일·반민족 세력은 살아남기 위해 반공이라는 갑옷을 입었다. 친일파의 숙청이 이루어졌다면 적극적 친일활동을 했던 조선일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잃어서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옥천'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와서 기자에게 주었다. 이 책자는 '조선바보'에서 발간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그 자매지인 '조광'의 친일행적을 사례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는 책자에 대해 설명하며 "기성세대로서 자네에게 '조선일보'라는 구시대의 잔재를 넘겨주게 되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다.

그는 "조선일보 반대 운동은 통일 대비 운동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이미 친일파 등의 반민족 세력에 대한 청산이 이미 이루어졌다. 통일이 된 후에도 조선일보가 살아있다면 북한 동포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이냐"고 기자에게 되물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바보' 운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는 말라며 이를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의 운동을 조그만 표본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주민들에게 조선일보 문제를 거론할 때도 사상과 이념 문제가 아닌 친일행각을 화두로 잡은 것은 그것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끊도록 단기적이며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런 국지적인 운동이 퍼져나가면 전국적으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힘은 독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들의 힘을 보여주면 조선일보 외 다른 제도언론사도 독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 전했다.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는 편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수치상으로도 옥천신문이 3000부를 발행하는 반면 조선일보는 1000부 내외이다.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해 조선일보 옥천 지국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나는 신문 판매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먹고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고충을 호소하다가도 부수에 대해 묻자 기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어떠한 언급도 거부했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사실 검증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거리로 직접 나가 사람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조선바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물총'에는 '독립군'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전투일지'라는 코너가 있다. 그 코너에 실린 수많은 조선일보 절독 사례가 과연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한 족발음식점이었다. 스타왕족발 사장 유지학(41)씨는 '조선바보'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고 조선일보를 끊었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끊은 지 얼마나 됐나.

"한 두 달 정도 됐다. 지금은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다."

배달이 곧 중지되던가.

"물론 쉽게 끊게 해주지 않았다. 이것은 구독자 선택권의 문제이다. 구독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조선바보 운동에 참여, 활동할 생각은 있는가.

"운동에 적극 참여할 여력은 되지 않지만 조선일보를 끊은 것으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다고 본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음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잠시 걸었다. 거리에는 작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다. 인적도 드물어졌고 경기 탓인지 점포 정리를 하는 곳도 많아 사람이 있는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지역은 경기를 더 심하게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가 발길을 멈춘 곳은 창백화원 앞. 인부 몇 명과 작업을 하고 있던 주인(40)은 바빠 보였지만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었다.

조선일보를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옥천에서 조선일보 보면 큰일난다. 지역이 좁아서 누가 보는지 다 알기 때문이다"

'조선바보'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운동의 취지에 동감한다. 그래서 책자 발간 때 지원을 하기도 했다. 옥천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화원을 나와서 길가는 행인을 만나 물어보기도 하며 늦은 오후 시간을 보냈다. 대전지역신문인 '중도신문'이나 '옥천신문'을 구독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조선일보 구독자는 만나기 힘들었다. 그날의 사례들을 정리하며 '조선바보' 운동이 생활운동으로 대중화되었다고 확신했다. 서울행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기자는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다. 주인 한영수(51, 서울식당)씨는 뜻밖에도 조선일보의 구독자였다.

조선일보를 보는 이유는.

"사업상 손님들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 손님 중에 조선일보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선일보를 구독한다"

조선일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 아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조선바보' 운동에 대해 들어봤나.

"부인은 식당 운영하느라 바쁘고 난 농사 짓느라 세상일에 별로 신경을 못쓰며 산다. 이 운동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본다"며 신기해했다.

이때 우리의 대화에 한 사람이 참여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강모 여인은 주인 한씨에게 "진짜 처음 듣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운동이 꽤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해주었다. 이런 그녀의 설명에도 한씨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에게 지금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묻자 "정치면이나 사회면 기사를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든 상관없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보지 않고 옥천신문과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옥천역에 도착했지만 기차 시간까지 약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마침 역 앞에 파출소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다. 그곳을 혼자 지키고 있던 전병국(순경, 31)씨도 얼마전 조선일보를 끊었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끊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조선일보를 구독했었다. 하지만 책자를 본 후론 계속 구독할 수가 없었다. 이곳 파출소에서도 회의를 거쳐 끊기로 결정했다. 끊은 지 한 3-4개월 됐다."

다른 관공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인가.

"친구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데 그곳도 조선일보를 끊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배달을 중지시키진 못했다고 한다."

'조선바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인가.

"경찰이라는 공인 입장에서 끊으라고 적극 권장하며 다니긴 힘들다."

열차 시간이 다되어 옥천역 대합실로 들어갔다. 휘재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무궁화호 열차에 올랐다. 이미 어두워진 옥천역의 풍경을 차창 밖으로 흘리며 좌석에 비스듬히 몸을 뉘었다. 그리곤 천천히 오한홍 씨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보았다.

"시민사회의 역량은 충분하다. 과거의 철창은 이미 걷혀졌다. 단지 사람들이 나는 법을 잊고 있을 뿐이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류지훈 기자

옥천에선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이 한창이다. 사진은 옥천역의 전경이다

류지훈 기자

옥천신문 편집국장 오한홍(44)씨

조선일보, 항일 · 정론의 81년(?)

친일신문인가, 배일(排日)신문인가? 조선일보 창간 81주년 기념 특별기획 '조선일보 사장열전'과 '명기사 명칼럼'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월) 창간 81주년을 맞은 조선일보는 이상재, 신석우, 방응모씨 등 자사 사장단들의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일보 사장열전'을 5회에 걸쳐 연재했고 지난 8일(목)부터는 조선일보가 '항일·정론의 논조'를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명기사 명사설'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이 기획들이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본보에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특집기획을 살펴보았다.

1. 9대 사장 방응모에 대한 역사 왜곡

'일제 말기 계초(방응모)는 시국강연에 나설 것과 참씨개명을 집요하게 강요받았으나 그때마다 묵묵부답으로 거부하며 소신을 지켰다'

'일제 말 B-29가 하늘에 보이면 "일본놈들 망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흐뭇해하던 계초는…' (3월 7일자 조선일보 9면 '조선일보 사장 열전 9대 계초 방응모 선생' 중)

일제시대 조선일보를 인수, 오늘날 방우영 사장까지 '방씨 일가'의 중시조로 일컬어지는 방응모는 광산 기업가 출신으로 1940년 조선일보 폐간 이후 자매지 '조광'을 통해 친일행각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이는 '광주학생운동은 조선의 불행' (1930년 1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 '천황폐하께 조선출신 범인 이봉창 폭탄 투척'(1932년 1월 10일자 조선일보) '일본제국과 천황에게-성은속에 만복적 희열을 느끼며'(1940년 7월호 '조광') 등의 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돌입한 1938년부터는 학병지원을 권유하는 '조선명사 59인 순회강연' 등을 다니고 '제권 가두 유격대'를 통해 일본의 전쟁채권을 강매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 민족문제연구소)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방응모 사장이 항일운동가였던 것처럼 묘사, 대표적 친일잡지 '조광' 편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2. 조선일보는 배일신문이었다(?)

'1920년에만 조선일보는 모두 32차례나 일제에 의해 압수당하고 2차례의 정간을 당했다. …그리고 1940년 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될때까지 '총독부를 놀라게 한 편집과 보도'는 계속된다'

'조선인민의 한을 묘사한 기사가 나가자 총독부는 글을 쓴 최국현 기자의 해고는 물론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3월 8일자 조선일보 9면 명기사 명사설)

조선일보는 창간당시인 1920년대 초, 실제로 박헌영, 임원근 등 당시 '진보적 좌파 지식인'들이 기자활동을 하면서 반일적 색채를 드러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20년 9월, 총독부로부터 항일적 논조로 인한 2차 무기정간을 받자 최국현 등 기자 3명을 해임시켰다. 이후 1925년 러시아 관련 사설 때문에 발행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도 조선일보는 박헌영, 임원근 등 기자 17명을 집단해고했다. 당시 해고기자들은 동아일보에 해고 규탄광고를 내고 항의 집회도 벌일 정도로 거세게 항의 했다. 회사측은 이들의 해고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신문의 정간을 막기위한 조처였음이 드러났다. 기자해고 직후 총독부는 정간조치를 해제했던 것이다. 반일기자들을 제거해야겠다는 총독부의 의중과 신문사를 살려야겠다는 조선일보사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상황이었던 것이다.

3. 조선일보 폐간은 총독부의 압력(?)

'일제의 폐간종용에 따라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1940년 8월 10일 폐간계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3월 7일자 조선일보 9면 '조선일보 사장 열전 9대 계초 방응모 선생' 중)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계속된 폐간종용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당시 민간지 폐간을 주도한 경무국장의 담화내용(매일신보 40.8.11)에 따르면 "신문통제를 결정해 1939년 이후 양사(동아·조선)와 협의하자 조선일보사는 쾌히 시국의 대세를 양해하고 나아가 국책에 순응한다는 태도로 나오고 동아일보와 동시 폐간을 희망하는 허락의 뜻을 나타내는데…"라고 되어 있다. 사회부

아름다운 시절, 오렌지색 만남

컴팩 대학생 페스티벌!

기간 : 2001.2.15 ~ 3.31

COMPAQ Presario

2,290,000원(VAT 포함)

용돈으로 해결한다

신선한 36개월 오렌지 할부판매

Presario 1700-XL461

Pentium III 700, 15GB HDD, 128 MB Memory (64MB + 64MB), 13.3"TFT LCD, 24X CD ROM, 56K Modem, 10/100 LAN, JBL Pro Audio System

구매자에게 드리는 혜택

컴팩 프리자리오 대학생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64MB 메모리, 노트북 가방, 휴대용 가방, 휠 마우스 보안경을 드립니다.

컴팩이 드리는 믿음직한 A/S - 프리자리오 익스프레스 Service

컴팩에서 제공하는 빨니고 확실한 A/S. 컴팩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직한 서비스는 구매자 여러분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 서울 - 4시간 이내 제품 pick-up / 24시간 이내 완제품 Return
● 지방 - 24시간 이내 제품 pick-up / 48시간 이내 완제품 Return
● 동일장비 대여 서비스

Mondial 디지털 시대의 전자화폐

문의 전화 : 313-4939

COMPAQ

철 없는 새내기들

좌담회- 새내기 우리 식구로 이렇게 맞이합시다

"새내기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민들레영토회장(동아리)/임나래(동유럽 · 폴란드 99) ▲상경대 학생회장(단대)/김정겸(상경 · 정상 98) ▲유고어과 과회장(과)/공성현(동유럽 · 유고어 96) ▲문화연구학회 학회장(학회)/권해선(사회 · 신방 00)

새 학기 학내 가장 분주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새내기들을 식구로 맞이하기 위한 모습일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로도 가슴 설레이는 일일텐데…

이에 본보에서는 학내 가장 큰 흐름인 새내기 사업을 통한 요즈음의 각 단위 고민과 생활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함께 할 공동체 문화를 그려보고자 한다.

사회(문화부장): 현재 각 단위에서는 새내기 맞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경대(단대): 단대는 각 과학생회를 묶어주고 결속력을 다져서 과 학생회를 지원해 주어야하는데, 상경대 학생회는 96년도 이후 계열제로 인해 학생회 자체가 파괴해져있는 상황입니다. 과 학생회 구성이 되지 않은 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대에서 과로 내려가 새내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반을 하여 반체제로 새내기들을 묶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민들레 영토(동아리): 작년에 인준받은 동아리로 평화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터 문화학교를 통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것으로 새내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과에 있는 학회와는 달리 꼭 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새내기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내기들을 마냥 기다리는 기존의 동아리들의 소극적인 새내기 사업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강의실을 방문하여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들을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연구학회(학회): 사회과학학회의 성격으로 신문방송학과에 있는 7개 중 하나인 문화연구학회입니다. 저희는 이미 새내기 사업을 진행 한 상태이고, 이번 주까지 학회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과는 다른 과보다 학회운영이 활발히 잘 되고 있어서 새내기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회(문화부장): 신방과의 대부분의 학회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연구학회(학회): 다른과의 경우는 계열로 들어가서 과가 정해지는 것이 2학년인데 반해 신방과는 99년 계열제 철폐이후, 00학번들이 과로 처음부터 들어와 결속력있게 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선, 후배 뚜렷히 한 식구라는 생각들이 학회가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경대(단대): 저도 무엇보다 과, 단대로 묶어지려면 하부에 있는 학회나 소모임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경대의 경우는 계열제 이전에는 16개의 학회가 존재했었는데 현재 4개의 학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열제로 인해서 자기 동기, 선배, 후배들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학회, 과 학생회, 나아가 단대학생회까지 연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유고어과(과): 과학생회는 직접적으로 새내기들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내기 사업에 있어 우선적인 것은 새내기들에게 학생회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내기들은 이미 대학입학전에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기 때문에 대학문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지 흥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강총회를 하나 하더라도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 새내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문화부장): 새내기 사업을 하며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상경대(단대): 상경대 아래 3개의 과 중 과회장이 있고 운영이 되는 과는 하나뿐인 실정입니다. 그 근본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열제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납니다. 계열제의 폐해로 재학생들조차 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새내기를 챙겨줘야하는 가장 가까운 2학년 재학생들도 막상 과 새내기이고, 또한 그들도 과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혹은 선배들에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후배들에 대한 관심도 적고 그래서 새내기, 재학생 서로 소속감이나 두리를 느끼지 못하고 개인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연구학회(학회): 저희 신방과는 99년 계열제에서 과제로 전환됐지만 사회과학대 안에 있는 정향계열의 문제점을 가까이에서 들어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계열제보다 과단위로 뭉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신방과 내에서 증명하고 있으므로 사회과학대 안에서 다들 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방과 학회의 경우 공통적으로 한학기는 사회과학 세미나를 하게됩니다. 또한 학회는 기본적으로 과학생회를 강화시키는 중간적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내기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합니다. 학회를 들면 '학생회 일꾼',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초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것 같습니다.

유고어과(과): 그래서 학생회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회에 관견을 없애는 것, 딱딱하게 하달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하나부터도 다양한 학생들을 묶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내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내기 사업보다는 일년을 내다보고 재학생들을 함께 연결하여 과로 묶어내는 것이 새내기가 두드러지는 3월 한달 반짝하는 과 학생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강총회의 경우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점만 살펴보아도 장기적인 과 활동을 위해 재학생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사회(문화부장): 학생회가 튼튼해지기 위해 무엇보다 새내기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사업이 나아가 재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학회, 과학생회, 단대 등의 두리로 뭉여 앞으로의 공동체적인 대학생활을 그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십시오.

민들레영토(동아리): 동아리의 경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새내기 사업이나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겠습니다.

유고어과(과): 저희는 소모임, 학회부터 시작하여 새내기와 재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예로 동유럽단대의 경우 우리말로 된 교재가 없는점이 지적되는데, 전공학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간단한 여행 가이드북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는 등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경대(단대): 일단은 반중심으로 운영을 잘 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사업들에 대한 계획으로는 연합모꼬지, 대동제기간, 반대항체육대회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겠습니다. 또한 신방과의 '하숙생을 위한 모임'처럼 작은 일상 하나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개인화 되어가지만 우리 새내기들은 우리 과, 단대,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이런 학회활동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낯선 3월의 새내기, 무엇을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몰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여느 새내기들과는 달리 벌써 학회에 가입한 천석현(동유럽 · 포루투칼어 01)군.

그는 "새터에서 선배를 통해 우리 과에는 어떤 학회가 있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고 한다.

브라질 고유의 춤을 배우는 '쌈바'라는 학회를 선택한 천군은 이 학회가 브라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축구를 사랑하고 호나우도를 존경한다"는 그는 "학회에서 브라질을 알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음이 뿌듯하다"고 전한다.

중학교 1학년때 학교를 자퇴 해 거의 6년만에 처음 학교를 다녀본다는 그는 "대학생이 되어 정말 기쁘다. 적응하기 힘들까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며 요즘 매일이 즐겁다고 전한다.

"쌈바의 화끈한 스텝처럼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다"며 그는 대학생활의 포부를 전했다.

이런 동아리활동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라는 긴 터널을 막 통과한 기분이다"라고 전하는 고형찬(서유럽 · 영어학부 01)군.

그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의 자유가 너무 부러워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막상 대학에 와보니 TV에서 보던 가볍고 즐겁기만한 대학생활은 아니었지만, 선배들과 동기들간의 돈독한 정은 기대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대학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그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도 대학생들에게 동아리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와 보니 동아리가 대학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한다.

모든 동아리가 신입부원 모집으로 바쁜 요즘, 그는 동아리의 활동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등을 고려해 본 후 동아리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활에서 나쁜 짓만 빼고 다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고군에게서 새내기의 풋풋함이 느껴졌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반 · 주의 언어를 찾아서

두벌자식-(12)

공훈과학자 김민화 동무는 가정에서 살뜰한 주부이고 세 자녀의 어머니이며 **두벌자식**의 응석을 곧잘 받아주는 할머니이기도 하다.

두벌자식→ 한 대를 건너 두 번째 대의 자녀라는 의미. 손자, 손녀를 달리 이르는 말.

책을 읽자 마음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 2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 것인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쾌하고 고전적인 이론이다"

〈정춘근 · 도서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서광사 / 6500원

개인과 사회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이 책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인의 자아완성과 자유의 신장에 있다고 본다.

또 공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에는 여론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의 자유가 인간성을 계발하는데 왜 필수적인가, 개성을 말살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는 왜 정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

"국사 책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의 역사,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미나

(자연 · 정보통계 99)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박세길

/ 돌베개 / 6000원

88년 책이 출간된 후 지금까지 대학생 필독서로 권장받는 책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이 책은 제목대로 다시 쓰는 현대사로 기존의 역사책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시각을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논증하고 있다. 또 자칫 딱딱하기 쉬운 역사이야기를 논쟁적이고 흥미 진지한 필치로 그려나가 읽기에 어렵지 않다.

'다시 쓰는 현대사'는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역사를 민중 주체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1권 '해방에서 한국 전쟁까지', 2권 '휴전에서 10. 26까지', 3권 '1980년에서 90년대까지'가 출판되어 있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유교사상의 허와 실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고, 한국인의 미래지향적 사고를 도와주고 있다"

박홍선

(정보통계학과 교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경일

/ 바다출판사 / 8000원

"우리는 이미 유동기한이 지난 봉건제적 망령과 함께 숨쉬고 있다. 인간적 삶을 위해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문화는 지양해야 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유교 문화 비판서의 저자 김경일(삼육대 교수)는 그렇게 말한다.

유교적 가치의 윤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준다고 꼬집는 이 책은 '이제 지도는 찢어졌다', '우리는 영원한 중국의 속국인가' 등의 47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유교문화를 냉철하게 비판함으로써 유교문화에 젖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욱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젊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 게바라. 지성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김정영

(대학원 화학과 2학기)

체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 실천문학사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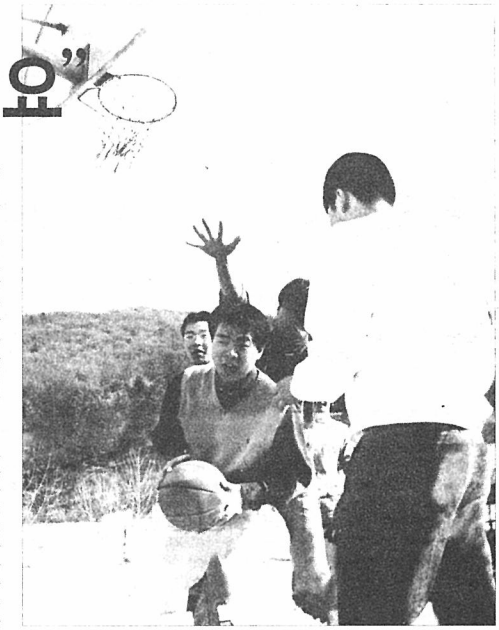
티셔츠, 시계, 맥주 등에서 만나던 체게바라. 그 자체가 하나의 혁명이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캐릭터, 그가 평전으로 돌아왔다.

특히, 대학가에서 크게 인기를 모은 그의 평전은 왜 그가 '꿈의 화신'이라 불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 책은 일간 파리지앵의 기자인 장코르미에가 30년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썼다. 아르헨티나의 의학도에서 혁명가로서의 그의 생애를 사진과 함께 엮었다. 진보의 열망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각인된 그의 캐릭터는 그의 평전을 베스트 셀러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밀착취재 - 새내기 용훈(인문학부 · 01)이의 하루

"수강신청 날 제일 신났어요"



3월 계절은 바야흐로 봄이라고는 하지만 이 너석이 불쑥 들어오기가 아직은 머쓱한 모양인지 문 밖에 빼꼼히 서서 겨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하다. 따뜻한 햇볕아래 아직은 찬 바람이 아쉬움의 자취를 남기며 마지막 양탈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배움터에 쌓인 눈들은 2001년을 이끌어나갈 새내기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서서히 녹아가고 있다.

3월, 아니 올 한해의 주인공인 새내기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내기 용훈(인문학부 · 01)이의 하루를 통해 이학번 새내기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보자.

차 창밖으로 점겨운 시골풍경이 펼쳐진다. 서울을 벗어나 꼬불꼬불한 국도를 따라 한시간 남짓. 학교가는 길은 높은 건물의 도심을 벗어나 빽빽한 우리 일상속에서도 잠시나마 마음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한다.

하지만 통학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용훈이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오늘 첫 수업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설레여 하는 것 같다. "어제는 버스에서 계속 서서 갔는데 좀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서… 솔직히 일어설까 말까 고민하는데 창피하게도 2분정도 망설였어요"라고 웃으며 고백하는 용훈이의 말대로 장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것은 용인배움터 학생들에게 은근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래, 과방으로 갈게" 학교에 다다를 때 즈음 용훈이 친구 진하에게서 전화가 왔다. 공강시간이나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 과방으로 향하는 용훈이. 아직 과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사학반이라는 테두리의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다.

"새터같 때부터 임의로 나누었는데, 운이 좋게도 내가 원하는 사학반이 되었다"고 하는 용훈이는 "학점을 잘 못 받아서 원하는 과를 못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은 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재수 해 다시 우리학교 사학과로 들어왔다고 해요"라며 학부제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과방은 새내기들로 북적거렸다. 선배가 들어올 때마다 일제히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푸릇한 새내기들, 선배들은 그저 바라만봐도 좋은 모양이다.

"이 교수님 너무 깐깐하신 것 같아" "이 수업 너무 어렵겠어" 등의 수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들, 친구들,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이름조차 아직은 헷갈려 인사를 다시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는 등의 대화들을 들으며 조금씩 공통분모를 나누기 위한 첫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다. 비록 어색한 웃음이 흐르기도 하고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모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엿보이는 대화들이었다.

"요즘은 매일 인터넷 커뮤니티 대화방에서 방과 후에 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도 잡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과방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 발견되었다. 서로의 일기장 역할을 했던 '날적이'. 용훈이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지금쯤이면 좋아하는 선배도 생겼을 법한데, 마침 과방으로 한 선배가 들어왔다. 새내기들이 "오빠, 투쟁 안해요?"라며 묻자 그 선배는 웃으며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한다. 용훈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그 동수라는 선배는 얼마전 일본교과서 왜곡사비 관련하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 선배가 사학도로서 해야할 일은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바보같으면서도 멋있어요"라고 용훈이는 그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연히 그 선배도 함께 대화하게 되었다. 용훈이는 자꾸 물어본다. "형, 한총련이 뭐에요?", "국가보안법은 왜 철폐되어야 돼요?"…, 선배는 자기의 경험담으로 경직되지 않고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수선배는 정말 학교를 좋아해요. 매일 먼저 와서 과방도 청소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텐데… 그리고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동권에 대해 색안경쓰고 보았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구요. 다만 나 같이 이기적인 아이는 도와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죠"라며 용훈이는 웃는다.

새내기들은 고민한다. "자기 돈 내고 밥을 먹는 멍청한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배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는 뻔뻔한 짓을 할 것인가"

점심 식당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선배들은 주머니가 털려도 후배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의 얼굴들은 한결같이 환하다. 자신이 선배들에게 받은 것들을 다시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어느 선배의 이야기는 밥을 사주는 선배들의 그 환한 미소를 설명해 준다. "사실 선배들에게 미안해서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라는 용훈이. 본 기자 또한 예쁜 새내기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

학내 이곳저곳에 동아리 모집 관련 대자보부터 외견개진 대자보까지 정말 요즘은 하얀 벽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용훈이가 수업을 들으러 교양관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서서 무엇인가 열심히 읽는다. 등록금 투쟁관련 대자보였다. 용훈이는 "자기 할 일을 얼마나 하고 투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등록금 투쟁하는 것은 공부하는 환경을 더욱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공부보다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아요"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다. "잘은 모르지만요"를 덧붙이며…

잠 꾸러기 용훈이는 1, 2교시가 없다. 고등학교 시절의 꽉 짜여진 일정과 틀 속에서 대학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용훈이에게 너그러운 것일까?

"수강신청을 하는 날 신이 났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정하고 나의 하루일과를 자유롭게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는 용훈이의 말처럼 지금까지 12년간의 교육은 진지하게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 없는 그저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정해 준 길로 끌려다녀야했던 시간들이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라는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의 길을 강요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일구어가고 만들어가야하는 첫 걸음, 그 첫걸음을 용훈이는 내딛은 것이다.

용훈이의 관심은 지역학, 정말이지 어느 한 과목도 용훈이의 꼼꼼한 생각이 빠진 것이 없어서 놀라웠다. 새내기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어 가끔 관심없는 엉뚱한 강의도 들음직하기도 하련만… 소신있는 새내기의 모습이었다.

용훈이의 오늘 수업은 '국제관계의 이해'. 막연했던 지역학, 관계학에 대한 물음이 풀린 모양이다. "토론식 수업이라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관심있는 국제 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고 전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또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젊다는 말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전하는 용훈이의 꿈은 국제지역학에 있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아직은 막연한 꿈이라고 속스러워하지만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용훈이의 모습에서 새내기다운 열정과 푸릇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길들인다'라는게 뭐지?" 어린왕자가 말했다.
"그건 너무 잊혀지고 있는거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여우는 말했다.

용훈이는 이제 신구대면식에 간다. 더 많은 선배, 친구들과 대학생활을 '길들이기'위해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서로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대학생활을 꿈꾸며 말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쇼! 새내기들

영화 안내

허공에의 질주

서대 시네마테크 3월의 테마- '청춘'
(1) 〈허공에의 질주〉(Running on Empty, 88. 미국)
1988년작인 시드니 루멧 감독의 〈허공에의 질주〉는 사회운동을 해 온 가족을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나이가 사회운동의 방향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수작으로, 흔히 접하는 미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소재를 다루고 있다. 국내 미개봉작으로 관객들의 호평에 의해 숨겨진 걸작으로 인정받고있는 이 작품은 93년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가 그 당시 아카데미 최연소 남우조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영화이기도 하다.

때: 3월 14일(수) 늦은 5시 30분
곳: 6311(대학원 3층)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⑪ 터어키어과

여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가볼만한 곳

이스탄불 문화원

1998년에 건립된 이스탄불 문화원은 다른 나라의 문화원과는 달리 사설 문화원이다.

문을 들어서자 마자 터키의 맛이 느껴지는 이 문화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다.

약 50여평 남짓한 이 문화원에서는 터어키어 강좌, 터키 요리, 문화 · 역사 강좌 이외도 터키티 등이 늘 상 열리고 있다.

그 중 터키요리 강좌는 세계3대 요리라는 터키요리를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 한달에 한번 열리는 터키티도 터키의 차와 나과를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인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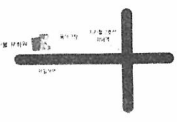
터어키어 강좌는 우리말에 능숙한 에르한 아나이 문화원장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 (터어키어 과정 한달 수강료 50000원, 터키요리 강좌 재료비 포함 수강료 60000원)

많은 터키의 전통문양과 장식품들과 접시, 꽃병, 모자, 옷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물건들이 구매 가능하다.

"터키의 문화와 역사, 언어와 관련된 책들과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은 무료로 일주일간 대여 할 수 있다"고 에르한 아타이 원장은 밝혔다.

그는 문화원에서는 터키 퀴즈대회, 자원 봉사 활동 등 많은 행사가 있다 많은 참여로 터키라는 나라와 친해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10 태평양 금융빌딩 11층
전화 : 02) 3452-8182
홈페이지 : http://turkeycenter.or.kr
이용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출구



읽을거리

강해경/ 정은문화사/8000원

멜하바 터키

역사상 위대한 동로마(서양)과 오스만투르크(동양)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터키. 그래서 인지 저자 강해경씨는 "터키를 가는 곳마다 유물이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1999년 가을 터키 여행에서 놀아와 터키의 풍속, 역사, 유물, 유적 등을 꼼꼼히 되짚어 맛깔스러운 여행기로 내놓았다.

터키의 절푸른 하늘과 자연 환경, 푸근한 인정, 천년한 문화유산들이 저자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담겨졌다.

직업 돌리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터키의 생생한 모습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터어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을 가진 '멜하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터키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이트

http://kbsworld.net/turkey

"이곳을 클릭하면 터키가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이면 터키에 닿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kbsworld.net/turkey에 들러보자.

이 사이트에서는 터키의 기후, 시차, 민족 구성 등의 기본 정보와 여행전문가의 조언, 여행기를 볼 수 있다. 또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소개도 있다.

터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아리를 통해 회원들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이트의 장점이다.

2개월간 터키에 살다, 유물소개 코너의 터키의 현지 통신원이 전하는 소식들은 지방색이 강한 터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담

터키를 여행한 이지은 (터어키어과 조교)씨를 만나

"다양함 속에서 생동감이 느껴져요"라고 터키에 대한 인상을 전하는 이지은(동양 · 터키어 98)양.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98년 여름부터 9개월간 터키 앙카라대학에서 공부했다. 동 · 서양이 만나는 지역학적 특성으로 터키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지각색이다.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이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국민성에도 영향을 미쳐 이런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따듯한 가족로 인해 여유롭다.

한국전에 참여했던 터키인들은 '한국'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발전상을 놀라면 매우 기뻐한다고 한다.

그녀는 "공공에 재래시장도 많고 주전자, 면기만, 종묘에서 한 번 갔다면 또 가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나라다"라고 터키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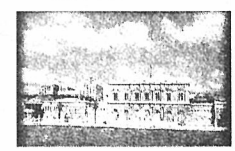
또한 그녀는 "세계 3대 음식으로 꼽히는 터키음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에서 '형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온다고 한다.

불안한 환율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터키리라'보다는 엔이나 마르크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다.

앙카라와 이스탄불이외의 곳은 지진에 남쪽에 위치한 도시들은 환산적인 바닷물 색과 그 안의 도시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터키의 기억을 전하는 그녀는 "터키는 지방색이 강해 터키를 이해하려면 이스탄불과 앙카라는 물론 터키의 지방도 다녀 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maincc.hufs.ac.kr/~weekly

홈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졸업선물

개강과 동시에 학교는 다시 학생들로 북적거리는군요. 그리고 대학이란 곳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들의 풋풋한 덕분에 캠퍼스 곳곳에서 싱그러움이 묻어나오는듯 하네요. 아직까지 버티는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창밖으로 넘실대는 봄기운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졸업식을 치루었지만 그 다음날부터도 역시 도서관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있네요. 도서관 출입만 가능할 뿐 도서대출은 전혀 안되다는군요.

음향도서관에서는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지만 졸업생에게는 당일반납 규정이 적용된다네요.

도서관 반납데스크에 조그맣게 적혀진 바에 의하면 졸업생은 졸업식 20일 전에 대출한 모든 책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미처 알 지 못한 가까운 친구는 고향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로부터 도서반납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금지규정들을 떠안은 졸업생의 서글픔때문일까요.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까지 느껴지는 학교의 냉정한 처사에 더욱 위축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한 일간지에서, 어느 대학교수님이 최근소망에 대한 답변으로 제자들의 취업성사를 말씀하시더군요. 이 분뿐만 아니라 우리 외대 역시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학교에 나와 있는 졸업생들의 취업을 바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력을 베풀지 못하는 학교가 원망스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선 취업준비의 기본적인 어학 시험들때문에 졸업생들은 어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일 대출도 대단한 배려일지 모르겠지만 재학생들과 달리 원서접수, 면접따위의 일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빌려놓고 들춰보지도 못하는 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도서대출입니다. 도서대출의 불가규정에 따라 졸업생들은 책이 필요할 때면 주위의 온갖 친분관계를 동원하여 대출을 받곤 합니다.

재학생들도 3권밖에 허용되지 않아 부탁이 어렵기만 합니다. 시험기간에는 이것마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졸업생들은 학교밖 도서관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입 회원가입 절차를 밟고 곳에 따라서는 일정액도 지불하고 말이죠.

이쯤에서 졸업도 했는데 취업이 안됐다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준비를 하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년씩 공부하던 곳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위해 다른 곳에 동지를 트는 것보다 학교측의 약간의 배려만 있다면 그리고 학교가 융통성을 보인다면 좀 더 수월하게 취업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런지요.

저희는 졸업선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선물은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졸업반지대금을 '졸업후 도서관 이용료"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훨씬 가치 있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유실이겠죠. 희망하는 졸업생들에 한해서 도서관 이용 보증금을 별도로 받아 대출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온 졸업생들이기에 재학생들보다 대출 받는 도서분야도 훨씬 넓으리라 확신합니다. 재학생들의 손에는 거의 닿지 않는 책들이 먼지로 쌓이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졸업생들로 하여금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어떨까요.

학비를 내고 다닐 때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하는 '일시적인 외대인 만들기'는 외대측 유대의 끈을 더욱 느슨하게 만들뿐입니다.

올해 졸업을 한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한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된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외대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외대인을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졸업선물입니다.

김선중
(사범 · 불어교육 97, 졸)

수강신청은 4학년이 먼저 할 수 있게…

나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다. 미리 듣고 싶은 과목을 다 선택하여, 짜 놓았던 시간표대로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대신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벌써 마감이 되었거나, 인원이 몇 명 안 남아서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을 느끼며 신청을 해야했다. 시간표는 학년별로 신청하게 되어있지만, 우리학교는 학년에 상관없이 신청만 되면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이 신청하는 날짜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2,3학년들이 4학년 과목을 많이 신청해서, 정작 4학년은 신청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추가신청(예전에는 교학과에서 해주었다.)과 변경기간이 있기에 거기에 희망을 걸었다.

그렇지만, 개강하고 학교에 왔을 때,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학년별 변경날짜를 보고 또 한번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일 나중에 신청한 4학년이 제일 먼저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청을 하려면 인원이 빠져야 하는데, 2,3학년들이 빠져야 4학년이 신청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결국 그 날 하루종일 컴퓨터앞에 있어봤지만, 전공과목의 인원은 거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당연한 것이다. 변경기간이란 말이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생각한 친구들과, 지인들은 추가신청을 하러 교학과에 갔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더더욱 놀라고 말았다.

많은 학생들이 줄을 길게서서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황금같은 시간에 몇 시간째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교학과에서 확실히 추가신청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4학년만 겨우, 전공과목도 1~2개만 해준다는 것이다. 수강신청을 거의 하지 못한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컴퓨터앞에서 기다려봐야겠다며 PC실로 들어갔다. 거기에선 한숨과 불만에 가득찬 소리들이 계속 들려 왔다.

이렇듯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이유는 두가지라고 나는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학년별로 뒤바뀐 수강신청 제도이다. 1,2,3년들은 신청을 원하는 대로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학기와 또한 계절학기가 있다.

하지만, 4학년들은 듣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4학년을 먼저 배려해줘야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학교에서는 계속 졸업시키지 않고 4학년생들을 붙잡아 둘 생각인지 궁금하다.

둘째는, 예전에 비해 허용 수강인원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교학과에서는 교실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적게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예전처럼 조금 빡빡하게 수업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대인들이 대학에 온 것은 원하는 공부를 맘껏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신청시스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아무 수업이나 듣게 된다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바로 진출해야할 4학년생들이 희생양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개선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윤연화(서양 · 영어 98)

교수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예전에 신문지상에서 본 글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은 어느 교수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거기서 그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목소리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성적은 기대치보다 훨씬 낮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저는 신입생이라 많은 강의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들어본 대부분의 강의에서 교수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목소리가 작으면 자연히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무리 교수님의 수업이 재미있고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도, 학생들은 그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저희 한국외대의 강의실을 둘러보니 저희 학교는 넓은 강의실은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강의실은 보통 20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더군요. 좁은 강의실에서의 수업은 교수님의 목소리가 작아도 모두가 들을 수 있지만, 80~100명 정도 들어가는 넓은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의 목소리는 앞의 몇 줄까지만 들려올 뿐, 그 뒤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시간 맞추어 강의실에 들어와도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없는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손해일 것이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아서 그 강의에서 얻는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학생들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희 한국외대 학교 시설은 참으로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강의실마다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수업에 들어와도 마이크를 이용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마이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교수님들께서 마이크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이크는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가르치는 재미도 생길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흥미와, 배우고자 하는 열기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입생은 한국외국어 대학교에 수업을 들을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곳을 배움의 요람으로 삼아 앞으로 발전된 자신, 그리고 발전된 조국을 건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저희의 조그마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저희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하승빈(상경계열 01)

명수당

탁석산
〈논리와 사고 과목 강사〉

학교발전을 위한 몇가지 고언

82학번으로 외대에 입학하여 학생으로 그리고 강사로 지낸 지 20년이 다 되어온다.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외대의 추락을 옆에서 가슴아프게 지켜보았다. 발언권도 없고 사정도 모르기 때문인데 이 지면을 통해 외대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첫째, 돈이 많은 재단이 필요하다. 경희대, 한양대가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외대를 통해 번 돈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아무리 을바른 교육관을 갖고 있다해도 돈이 뒷받침 안되면 공염불이다. 실제로 학교에 돈을 투자할 재단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운영 간섭을 염려한다면 단일 재단이 아닌 콘소시엄 형태도 좋을 것이고 외국인 재단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종합대에서 단과대로 전환하여 특화, 전문화하여야 한다. 왜 외대가 부담이 많은 종합대학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외대도 갖지 못하는 종합대로의 확장은 재벌식 확장과 다를 바 없다. 덩치를 키워 보이야 먹이만 많이 들 뿐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인문사회학 중심의 단과대학으로 전환하여 한국 최고의 인문사회대학을 만든다면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문대학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훌륭한 도서관과 답싹한 강의실 그리고 실력 있는 교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과 구분을 없애고 4년 동안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게 하는 것이 인문학도를 키우기에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왕산 캠퍼스는 교명은 그대로 두고 분리 매각하거나 별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서울 바깥터를 거대한 하나의 건물로 짓는 것이 좋다. 어차피 이문 캠퍼스는 좁은 땅이다. 이 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국방성 건물처럼 캠퍼스 전체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다. 지상 5층 지하 3층 정도로 하여 5각형이 좋을 것 같다. 오각형 중심은 공간으로 남겨 나무를 심거나 호수를 만들면 보기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 안에는 강의실, 연구실 외에 테니스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지금보다 오히려 학생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큰 건물을 짓게 된다면 공사비와 그 동안의 강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사비는 부자 재단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고 아니면 건물 중 한 층의 소유권을 넘기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1년에 6개월을 쉬므로 공사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넷째, 외대인간의 연대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운동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사회생활을 해보니 외대인 만큼 연대의식이 희박한 집단도 보기 어려웠다.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화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운동부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꼭 우승하는 강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꾸준히 출전하면 관심을 끌 것이고 관심은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대 사랑, 외대인이 아니면 누가 하나?

위 글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